

3. 조선 후기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이어지는 18세기 초는 한국 서예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시대로 평가되고 있다. 이 시기는 조선 중기에 싹트기 시작한 민족적 자아의식을 바탕으로 가장 한국적인 서풍이 풍미한 시대였다. 17세기 후반에 실학의 영향이 확산되면서, 서예·회화·공예·문학 등 예술 전 분야에 걸쳐 민족 특유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예술현장으로 파급되었다. 서예는 옥동(玉洞) 이서(李· :1662~1723)와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 :1668~1715)로부터 시작된 ‘동국진체(東國眞體)’라고 하는 새로운 서풍이 출현하였고, 회화는 겸재 정선(1676~1759)으로부터 시작된 ‘동국진경(東國眞景)’이라는 새로운 화풍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 진(晉)·당의 서법을 주체적으로 비판·수용하면서 축적된 예술적 안목과 식견으로 양송체를 탄생시켰으며, 이러한 전개양상이 조선 후기로 이어지면서 송·원나라의 서법까지를 수용하고 민족정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 동국진체가 출현하게 되었다. 서예가 이 땅의 정신예술로 자리잡은 이후 중국서예를 맹목적으로 모방하고 추종하는 길만이 서예의 정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대주의적 발상과 아집으로 중국서예의 수용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마저 포기한 채 매너리즘에 빠진 한국서예의 비판과 자성을 토대로 전개되기 시작한 서풍이 바로 동국진체이다.

민족의 진정한 서체로 일컬어지는 동국진체는 중국서예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족 고유의 정서와 감성을 바탕으로 민족적인 조형정신을 구현하는 데 큰 비중을 두었다.

이는 형식과 법리에 묶여 있는 중국서예의 정체성을 비판하면서 한국서예의 독자성을 주장한 서예가들에 의해 출현, 자유분방한 필치에 해학과 여유를 내재시키는 형상성을 추구하였다. 또한 인간정신의 발현을 통한 삶의 가치를 노래하는 조형어법을 구사하였다. 이처럼 중국예술로부터의 종속논리를 거부하고 민족적 자아의식의 발현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전개양상은, 당시 성리학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비판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과 개혁을 제시한 새로운 사조인 실학이, 영조·정조대에 크게 대두되면서 문화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의 독자적 서체로서 동국진체가 출현하고 한국의 자연을 독자적 화법으로 형상화한 동국진경의 출현 역시 실학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서로부터 시작된 동국진체는 윤두서와 백하(白下) 윤순(尹淳)을 거치면서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 :1705~1777)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이서는 숙종대에 활약한 서예가로서 그의 학문은 이익과 그 계보를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반계(磻溪) 유형원(1622~1673)으로부터 이익에게로 이어지는 실학의 맥을 연결해주는 존재로서 주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조형사고를 엿볼 수 있는 『홍도유고(弘道遺稿)』에서 전 시대에 유행했던 송설체를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중국의 역대 명가와 한국의 명가를 비교·평가하는 비평가적 입장으로 민족의 주체성 결여를 비판하였다. 특히 자신의 저술인 『혈결(筆訣)』을 통하여 서법의 근본원리를 『추역』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경학의 사고체계를 서론(書論)에 반영하고 있음은 당시의 실학적 분위기를 엿보게 한다.

한편 허전(許傳)이 쓴 ‘옥동이선생홍도공행장(玉洞李先生弘道公行狀)’에 “동국진체는 옥동으로부터 시작하여 그후 공재 윤두서, 백하 윤순, 원교 이광사로 이어졌다. 원교가 일찍이 말하기를 옥동의 글씨는 논의를 통해서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있다.”고 언급된 기록에 의거, 동국진체를 이서가 창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윤덕희(尹德熙)가 쓴 ‘공재공행장(恭齋公行狀)’을 보면 “옥동은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공재 윤두서와 함께 영자팔법(永字

八法)을 연구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언급으로서 동국진체를 옥동이 창시했다는 믿음에 의문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윤두서의 친형인 윤흥서(尹興緒)가 동생을 회고하는 글에서 “어려서부터 글씨를 잘 써서 5~6세 때에 이미 붓을 들어 큰 글씨를 썼는데 전하여 가보로 삼았다.”고 한 것처럼 그는 글씨로 필력을 얻은 후에 그림에 몰입하였다.

그런데 이서가 윤두서와 함께 영자팔법을 연구했다면 그 시점이 윤두서가 40세 전후에 서울로 잠시 이주했던 시기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미 성가(成家)하여 서화로 크게 이름을 얻고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영자팔법을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나이 40세를 전후하여 실증적이고 체험적인 미의식에 실학적인 학문체계를 토대로 확고한 예술관이 확립되어 있었으며, 서예와 회화는 물론 전각에 이르기까지 독보적 경지를 개척했다. 뿐만 아니라 『주역』·천문지리·병서·금석학 등에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동국진체의 창시는 이서가 아닌 윤두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국진체의 창시보다는 그것을 완성하고 대중화시킨 이광사의 업적을 더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광사는 1705년 8월 28일 정종의 열번째 아들인 덕천군(德泉君) 이후생(李厚生)의 10세손으로 태어났다. 그의 증조부 서곡(西谷) 이정영(李正英 : 1616~1686)은 전서에 뛰어난 서예가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서인 정권의 주요 인물이었으며 노소분당 이후 소론의 입장에 섰고, 조부 이대성(李大成 : 1651~1718)은 소론의 주요 인사로 활약하였다. 부친 각리(角里) 이진검(李眞儉 : 1671~1727) 역시 평안도 관찰사와 예조판서를 지낸 당대의 명필이었다. 그러나 그의 나이 20세 때인 1724년 2월에 모친상을 당하면서부터 모진 고난과 시련의 세월이 연속되었다. 그해 노론의 집권으로 인하여 부친이 강진으로 유배되었는데, 1727년 9월 사면과 함께 병으로 사망하였다. 나주로 유배된 백부가 추자도로 이배된 다음 1730년 4월 서울로 압송되어 국문(鞫問)을 받던 중 사망하였고, 1731년 5월에는 부인마저 쌍둥이를 분만하다가 죽는 시련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불행과 한이 축적된 이광사가 전남지역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733년 4월 나주의 모산(지금의 영암군 신북면)에 살고 있던 문화(文化) 유씨(柳氏) 집안과 재혼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서울의 동그재(圓嶠) 아래에 살면서 그곳의 지명을 아호로 삼고 글씨에 전념하였다. 그런데 1755년 2월 소론계의 윤지(尹志)가 1724년 김일경(金一鏡)의 옥사에 연좌되어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자신은 제주도와 나주에 30여 년간 유배된 것에 불만을 품고 집권세력을 비난하는 글을 나주객사의 벽에 붙인, 이른바 나주괘서사건(羅州掛書事件)이 일어났다. 이로 인하여 윤지를 체포하고 심문하는 과정에서 소론 인사들과 오고간 다수의 서찰이 발견되었는데 그 가운데 이광사와 그의 부친 그리고 백부의 서찰이 있었다. 이것을 나주괘서사건에 연루시킨 노론세력이 소론계 인사들을 완전히 축출하려는 의도 아래 옥사를 확대시키면서 이광사 또한 심한 고문을 당하였다. 그때 이광사가 극형에 처해진다는 소문에 부인 유씨가 목매어 자살하였고, 그는 함경도로 유배되었다. 1762년 진도로 이배된 후 다시 완도군 신지도로 이배되어 동국진체의 이론체계를 세우고 창작에 몰입하다가, 23년간의 유배생활 끝에 1777년 8월 26일 신지도 금실촌에서 한 많은 생애를 마쳤다.

이처럼 끝없이 펼쳐지는 시련과 좌절의 아픔이 투영된 듯 그의 글씨는 오른쪽 어깨가 약간 처져 보이는 비스듬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외형보다는 내기(內氣)의 역동적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의 글씨는 급한 산자락을 휘어 감고 굽이치다가 평야를 만나 한가롭게 흐르는 강물처럼 호쾌한 기상과 넉넉한 여유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어, 고난을 극복한 인간 정신의 숭고한 가치를 읽게 한다. 폭넓은 진폭의 음율과 다양한 선조의 표정이 엮어내는 조

화가 마치 살풀이 춤사위를 연상케 하는가 하면, 남도창과 같은 친화력을 지니고 있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향한 절규를 감지할 수 있다. 시련과 좌절의 고통으로 인한 견잡을 수 없는 감정의 회오리를 이지적 감성으로 압축시키고, 그것을 하나의 음악으로 풀어낸 획선과 억압에 대한 해방의 노래를 부드러운 몸짓과 절제된 표정의 해학적 형상성에서 진한 감동과 호소력을 갖는 그의 조형어법은 지극히 남도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조형구조는 한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조형 에너지가, 삶의 역정을 통해 얻어진 한으로부터 생성되었고 그것을 직관으로 걸러낸 획의 표정에서 한이 극복되고 승화된 경지를 읽을 수 있다. 그것은 예술로 승화된 한의 표정이고 몸짓이다. 이는 추사(秋史)의 서릿발처럼 매섭고 예리한 필획의 표정이 노기로 충일되어 한의 실체를 형상화하는데 그치고 있는 반면, 이광사의 부드럽고 온화한 필획의 표정은 한을 예술로 승화시킨 도인다운 풍모를 엿보게 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더욱이 획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붓을 사용한 추사의 글씨에서 느껴지는 사납고 경박한 느낌을 이광사의 글씨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이광사의 필획과 결구는 해학과 여유가 물씬 풍기는 흥취가 있지만 추사에게서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추사는 이광사의 예경(藝境)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광사의 필치는 경쾌하면서도 육중한 운필에 의해 형상화되는 필세의 리듬이 작위성이 배제된 자연의 숨결로 보여지는가 하면, 살풀이 춤사위처럼 읽혀지기도 하고 남도창의 음표로 자리잡기도 한다. 그것은 한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내고 그것을 다시 형상화하는 이중구조 위에 용필과 운필의 다양한 변화는 물론이고, 짙고 무거운 농묵(濃墨)을 맑고 경쾌한 담묵(淡墨)으로 먹빛을 변화시키는 용묵의 다양성을 중요한 조형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작업 중에 인근의 명창들을 불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거나 악기를 연주케 하여, 글씨와 음악과 무용의 접맥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일몽(一夢) 이규상(李奎象 : 1727~1799)은 그의 일몽집(一夢集)에서 “원교가 글씨를 쓸 때에 노래하는 사람을 세워두었는데 노랫가락이 우조(羽調)일 때는 글씨에 우조의 분위기가 서려 있고, 노랫가락이 평조(平調)일 때에는 글씨에도 평조의 분위기가 서려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의 글씨는 기(氣)를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이처럼 삶의 질곡과 애환이 담긴 춤과 음악을 글씨에 접맥하려는 그의 조형사고는 기존의 형식논리, 즉 서론에 근거한 결구와 장법보다도 생명력을 감지할 수 있는 획법과 기맥의 리듬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조형질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형사고는 그가 처결(書訣)이라고 하는 방대한 서론을 저술하여 동국진체의 이론체계를 완비함으로써, 한국서예의 미학적 가치와 평가기준을 중국의 서법과 서론에 의존한 기존의 사대주의적 발상과 논리를 거부하고, 민족의 문화적 감성과 정서를 반영하는 새로운 서풍의 전개로 귀착되었다. 그것이 바로 전 시대에 전개되었던 주체적 서풍과 중국서예의 장점을 창조적으로 해석하여 이광사에 의해 완성된 동국진체이다.

1764년 6월 이광사는 유배지인 신지도에서 처결을 완성하였고, 1768년 정월에 처결 후편을 탈고하여 동국진체의 이론을 완비하였다. 이는 중국의 서론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획기적인 저술로서 최초의 한국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중국의 서론보다 충실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따라서 민족적 주체성에 의한 한국적 서풍의 발양지는 전남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송체의 출현과 전개가 전라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동국진체를 창시하고 완성한 곳이 바로 전남이다.

특히 전남지역은 수려한 경관과 풍부한 물산으로 인심이 후하고 아름다워 사람이 살기에 좋

은 천혜의 땅이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정치권력의 박탈과 신분하락으로부터 생성되는 한을 다스리기에 적합한 유배지로 선택되면서, 자연 환경과 한이 어우러진 독특한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화와 예술이 발양하여 일찍부터 예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남도지역이 예술의 고장으로 불리게 된 배경은 결국 남도의 삶이 한의 현상이었고 역사였으며, 거기서 우리나라 남도지역의 정서 또한 한을 토대로 형성되어 그 한을 예술로 승화시키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그래서 한을 미학으로 풀어내지 못한 예술가가 존재하지 않는 남도의 역사를 볼 때, 한은 전라도 예술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라도 특유의 문화적 토양이 동국진체의 태토(胎土)가 되었고 그 예맥(藝脈)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동국진체는 남도 특유의 정서를 반영함으로써,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급속도로 확산되는 전개양상을 보이면서 문화의 역류현상이 나타났다. 지방예술이 중앙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를 넘어 기존의 서풍을 고사시키면서 하루아침에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 뿌리내리고 고착화되는 초유의 현상과 함께, 조선시대 후기를 화려하게 장식하여 '남도예향'의 상징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남도서예의 특징적 서풍이 동국진체이며, 수많은 서예가들에 의해 그 맥이 이어지고 있다.

동국진체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전개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대략 1760년을 전후한 시점으로 여겨지는데, 순천지역에는 다른 곳보다 약간 늦은 1780년대로 추정된다.

눌암(訥庵) 식활(識活 : 1752~1830)은 속성이 전씨(全氏)로 여천군 율촌면 삼산리에서 태어났다. 1768년 12월 선암사에 들어가 승려가 된 뒤 선지식(善智識)을 찾아 금강산 마하연에서 7년, 묘향산 범왕봉 바위에서 3년 동안 좌선하였는데 이때 두 마리의 호랑이가 호위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득도한 그에게 승려와 속인들이 원근에서 구름처럼 몰려와 법문을 청했다. 그 가운데 평안감사로 있던 직암(直庵) 윤사국(尹師國 : 1728~1809)이 크게 깨우침을 얻고 스승으로 받들었다고 한다. 당대의 천하 명필로 이름을 날린 윤사국은 이광사로부터 동국진체를 배워 일가를 이루었는데, 그는 눌암에게 글씨를 가르치고 눌암은 그에게 선지식을 가르치는 상호호사(相互呼師) 관계를 맺었다.

눌암은 왕희지의 필법을 기반으로 하여 윤사국에게서 동국진체를 익혀 청경한 품격과 웅휘한 기상으로 단숨에 명필의 반열에 올랐다. 1789년 봄 금강산에서 오대산을 거쳐 선암사로 돌아온 눌암선사는 서법에 더욱 정진하여 탈속의 신경지를 열었는데, 선암사 주변의 선비들은 물론이고 각지에서 그의 필적을 구하기 위하여 줄지어 기다렸다고 한다. 이때 윤사국은 예조판서로 있으면서 선암사의 승장(勝狀)을 대내에 아뢰어 교궁관(敎宮官)이 제향(齊香)을 받들고 눌암선사가 주관하여 원통전에서 치제(致齊)하고 대각암에서 100일 기도를 올려 왕세자의 탄생을 기원하였다. 드디어 1790년에 세자인 순조가 태어나니 정조는 눌암선사에게 '국일도대선사(國一都大禪師) 대각등계홍제존자(大覺登階弘濟尊者)'의 첩지를 내리고 자수가사와 금병풍(金屏風) 그리고 향(香)·차(茶)·약(藥) 등의 진품과 함께 세자가 쓴 '대복전(大福田)'이라는 해서체의 글씨를 1796년(정조 20)에 하사하였다. 이어서 순조가 보위에 오른 1801년 겨울에 다시 '인(人)'과 '천(天)' 두 글자를 하사하여 대복전과 함께 원통전에 걸게 했다. 1819년 3월 대화재로 대웅전·명부전·정문루·향로전 등 불우(佛宇) 4동과 승당·선당 등 요사채 6동이 소실되었는데, 이 또한 왕실의 지원으로 중창불사를 완료하였다. 이때 중건한 불우의 현판들을 눌암선사가 썼는데 '호남제일선원(湖南第一禪院)', '응진당(應眞堂)', '달마전(達摩殿)' 등의 편액(篇額)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어 그 빼어난 필력을 엿볼 수 있다.

눌암선사의 뒤를 이어 순천을 중심으로 활동한 주요 서화가로 미방(米舫) 김익로(金益魯 :

1845~1915), 사호(沙湖) 송수면(宋修勉 :1847~1916), 매천(梅泉) 황현(黃玹 :1855~ 1910), 남파(南坡) 김효찬(金孝燦 :1864~?), 세심(洗心) 남한철(南漢哲, 철종대), 염제(念齊) 송태회(宋泰會 :1872~1941), 설주(雪舟) 송운회(宋運會 :1874~1965), 효봉(曉峰) 허소(許炤 :1882~1942), 효당(曉堂) 김문옥(金文錡 :1901~1960), 미산(米山) 최동주(崔東胄 :생물연도 미상), 벽소(碧笑) 이영민(李榮珉 :생물연도 미상), 송헌(松軒) 김천동(金天東 :생물연도 미상), 월산(月山) 정영철(鄭永哲 :1895~1966), 설성(雪城) 박원경(朴圓庚 :1896~1967) 등이 있다.

김익로는 호를 미산(眉山)으로 쓰기도 하며 순천 매곡동에서 태어나 시·서·화 삼절(三絶)로 이름이 높았는데, 대원군이 그의 서화를 보고 북송대 미불(米芾)의 미를 빈 배에 가득 싣고 있다는 뜻으로 미방이란 호를 지어 주었다고 한다. 그는 소치(小痴)와 초의선사(草衣禪師)에게 사사하면서 해남으로 이거하였다.

송수면은 화순 동북 출신으로 나비그림을 잘 그려 송나비로 불리기도 했으며, 글씨는 동국진체를 이어받았고 수묵담채 및 사군자에 능했는데 묵죽을 특히 잘 그렸다. 그의 제자 송태회 역시 화순 출신으로 시·서·화에 두루 능했으며, 송광사에 많은 유묵이 전해지고 있다. 황현은 광양에서 태어나 구례에서 살았으나 순천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유물의 상당 부분이 순천에 산재해 있다. 그의 글씨는 우국충정과 문학에 빛이 가려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서법 연찬을 통해 소동파와 미불 그리고 동국진체의 정수를 뽑아 독자적인 필법을 구사하였으며, 단아하고 유려하면서도 강경함을 잃지 않는 높은 경지를 열었다.

김효찬과 남한철은 순천 출신으로 이광사, 창암(蒼巖) 이삼만(李三晩 :1770~1847), 기초(箕樵) 모수명(牟受明 :순조~고종대), 호암(湖巖) 박문회(朴文會 :고종~철종대) 등으로 이어지는 동국진체의 학맥을 계승하여 행초에 능했다. 특히 김효찬은 시문에 뛰어나 1890년대에 '난국사(蘭菊社)'라고 하는 문학단체를 조직하여 크게 활동하였으며, 미방과 동기창(董其昌)의 필법을 익혀 득력하고 필명을 크게 얻었다.

송운회는 보성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서법을 익혀 잠시도 붓을 놓지 않고 임종 전날까지 글씨를 썼다. 일신의 영달과 명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예도의 외길을 걸어 일가를 이루었다. 왕우군(王右軍)과 동기창에 심취하였으며 동국진체의 맥을 정통으로 이어받았다. 오체(五體) 가운데 특히 해서·행서·초서에 능하여 소박하면서도 유려한 필치로, 선비다운 기상과 여유가 넘치는 명필로 회자되었다. 허소 역시 보성 출신으로 허목의 필법을 이어받아 오체에 두루 능했는데 그 중에서도 전서·예서에 뛰어났으며, 사군자와 산수화에도 기량을 발휘하였다. 순천 출신인 최동주·이영민·김천동 역시 동국진체의 예맥을 이어받아 일가를 이루었는데, 한말과 일제 강점기의 불운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서가들이다. 특히 이영민은 순천을 대표하는 명필로 이름이 높았으나, 좌익활동의 지도자로 변신하는 바람에 예술적 업적이 퇴색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정영철은 여천군 현천 출신으로 일본 동경미술대학을 졸업하고 8·15해방 이후 주로 순천에서 활동하였는데 행서와 예서에 일가를 이루었다. 1965년 옛 청맥다실에서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었으며, 제1·2회 전남도전 심사위원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김문옥은 함천 출신으로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의 학맥을 이으면서 안진경체로 일가를 이루었다. 박원경은 평양 출신으로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일본 경시청에서 근무하다가 해방 이후, 순천으로 이거하여 셋방을 전전하면서 과년한 딸과 함께 살았다. 그는 일본 경시청에 근무한 과오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없다며 속죄하는 의미로 평생을 커다란 샷갯을 쓰고 살았으며, 시·서·화로 여생을 보냈다. 글씨는 오체를 두루 섭렵하였는데 동기창과 하소기(何紹基)를 근간

으로 한 행초에 뛰어났다. 특히 자유분방하면서 간명한 필치의 문인화는, 직관을 바탕으로 대상의 정확한 특성과 이미지를 추출해내는 필력으로 높은 품격과 문기가 넘치는 오묘한 경지를 개척하였다.